

- ④ 반대 2는 사실 논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군.
- ⑤ 반대 2가 제시한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이나 표본 수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논거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겠군.

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³⁾]

< 보 기 >

토론에서 ‘숙의 시간’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를 상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근거 중에서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볼 수도 있다.

- ① 찬성 측: 봉사 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도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해야겠어.
- ② 찬성 측: 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별도의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겠어.
- ③ 찬성 측: 복지 시설 운영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어.
- ④ 반대 측: 봉사 활동 점수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찬성 측이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어.
- ⑤ 반대 측: 봉사 활동이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의무적 봉사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겠어.

[4-5]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어, 영호야, 일요일인데 학교에 웬일이니? 아침에 나왔는데, 이제야 보게 되네?

영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아침에 나왔는데 ... 교무실과 교실이 멀어서 이제야 뵈게 됐나 봐요. ㉠내일이 시험인데, 미처 못 한 공부가 많아서요, 마음잡고 공부하려고 학교에 나왔어요.

선생님: 공부는 많이 했니?

영호: 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학교에서 공부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오늘 일요일인데, 선생님께서도 요즘 하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선생님: 그래. 교재 연구를 해야 해서 학교에 나왔지. ㉡나도 집보다는 학교에서 일이 잘되는 것 같더라고.

영호: 그렇군요. 참, 선생님, 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그럼. 고민이 뭐니?

영호: ㉢전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래서인지 제가

좋아하는 국어, 영어 성적은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데, 제가 싫어하는 수학, 과학 성적은 늘 불만족스러운 수준이죠. 담임 선생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담 때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같리고 성적 편차가 심해서 걱정이 된다는 말이로구나. 선생님도 고등학생 시절에 비슷한 문제로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네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 혹시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무작정 공부하지는 않니?

영호: 맞아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부하려면 계획이 중요해. ㉤우선 어느 과목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좋아하는 과목에만 공부가 치우치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거지. 어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영호: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A][선생님: 벌써 1시네. 난 지금 식사하려고 하는데, 밥 먹으러 같이 가는 건 어떠니?

영호: 집에서 친척 모임이 있는데요, 곧 시작할 시간이예요.]

선생님: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영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보기>는 [A]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은?4)

< 보 기 >

[A]에서 영호는 선생님께 식사하러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 선생님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처럼 실제 대화 상황에서 거절의 의미를 전달할 때 화자는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 표현에 담긴 함축적 의미는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혜연: 준석아,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학교 축제 보러 오지 않을래?
준석: 그날은 어렵겠네. 미안해.
- ② 혜연: 준석아, 시험도 끝났는데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준석: 가기 힘들어. 선약이 있어.
- ③ 혜연: 준석아, 요즘 안 좋은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준석: 큰일 아니야. 감기에 걸려서 그래.
- ④ 혜연: 준석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날 위해 뭘 해 줄래?
준석: 그래? 오늘 근사한 선물 준비해 둘게.
- ⑤ 혜연: 준석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놀러 가지 않을래?
준석: 내일이 수행 평가 보고서 제출일인데 수행 평가 보고서를 아직 다 못 썼어.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

- ① ㉠: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③ ㉢: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면서 반응하고 있다.
- ⑤ ㉤: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다.

[6-7] 다음은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보도 내용

학교 도서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상당수의 학교 도서관이 현재 단순한 '도서 대여점' 역할에 그치고 있다. 학교 도서관이 교육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라도 쉽게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 통계 자료

1. 학교 도서관 설치 현황



2. 학교 도서관 사서 또는 사서 교사 배치 현황



(다) 인터뷰 자료

1. 학생

“저희 학교는 사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도서관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교사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적인 공간이 되려면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도서관과 학교 수업을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 개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정부 관계자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그 임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6)

- ① (가)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이 현대화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② (가)와 '(나)-2'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이 도서 대여점 역할에 그치는 원인으로 학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재를 제시해야겠어.
- ③ (가)와 '(다)-2'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연계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해야겠어.
- ④ '(나)-1'과 '(다)-1'을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을 학생은 물론 외부인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해야겠어.
- ⑤ '(나)-2'와 '(다)-3'을 활용하여, 전체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해야겠어.

7.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7)

< 조건 >

- *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을 활용할 것.
- *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할 것.

- ① 개발에 편자로 전락한 학교 도서관
-도서 대여점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 ②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 실시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수행이 더 중요
- ③ 학교 도서관, 학생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전문 인력의 확충과 독서 프로그램 개발 시급
- ④ 찬물에 기름 돌듯 하는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학교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할 전문 인력 부족
- 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이 된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시급

8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학생의 기행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⁸⁾

- 〈 보 기 〉
- ㉠ 여행지를 정하는 과정을 밝히자.
 - ㉡ 여행지의 특성을 언급하며 여행의 의미를 밝히자.
 - ㉢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 여행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을 제시하자.
 - ㉤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에 대해 언급하자.

(제부도에 다녀와서)

작성자: ○○ 고등학교 김○○

얼마 전 친구와 다투어서 많이 속상해 있었다. 그래서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같이 여행을 가 볼까 생각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평소에도 섬에 가 보고 싶었지만 거리도 멀고 갈 만한 섬을 찾지 못해 그동안 가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제부도! 하루에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라고 했다. 그곳을 여행하면 친구와 나의 마음속에도 화해의 길을 열어 줄 것만 같아서, 그리고 그 과정을 글로 남기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계획을 잡고 출발했다.

제부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본 바다는 말 그대로 평화로웠다. 잔잔한 파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우리 둘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느낌이었다. 버스에서 만난 제부도 주민께서 섬 안에 산책로가 있다며 꼭 가 보라고 알려 주셔서 직접 가 보았는데, 좀 짧긴 했지만 전망대도 있고 사진을 찍기에도 좋아서 나를 만족스러웠다. 오는 길에 조개구이도 먹으면서 친구와 나는 어느새 예전의 단짝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오히려 싸우기 전 보다 더 친해진 느낌이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는 이번 화해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다음 공익 광고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써 보자.

B.C. 8000	 주먹도끼
B.C. 2000	 돌칼
14C	 철제 무기
21C	 커서
사람을 위한 도구가 사람을 향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의 초고)

문명의 발전 뒤에는 도구의 발전이 있었다. 이 광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명의 도구 역시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는 주로 인터넷에서 사용된다는 점으로 보아 이 광고에서는 가장 진화된 도구로 인터넷을 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광고에서 가장 진화된 도구는 커서이다.

문명의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기가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문명의 도구를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만 사용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진개되어졌을까?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흉기로 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인류가 낳은 가장 진화된 도구로서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틀려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⁹⁾

- ① 광고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광고의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광고와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④ 광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광고가 다루는 화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⑤ 광고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고에서 다루는 화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①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거듭해 왔음을 보여 준다’로 고치는 게 좋겠어.

② ㉡: 내용상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어.

③ ㉢: 중복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진개되었을까’로 고치는 게 좋겠어.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게 좋겠어.

⑤ ㉤: 어휘의 쓰임을 고려하여 ‘달라질’로 고치는 게 좋겠어.

11. 다음을 바탕으로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1)

표준어 규정 제2장 제9항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내기	-나기	서울-, 시골-, 꽃-
냄비	남비	
동댕이-치다	동당이-치다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아지랑이	아지랑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유기장이	유기쟁이	
담쟁이	담장이	

①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겠군.

② ‘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을 뜻하는 말은 ‘신출내기’로 표기해야 표준어 규정에 맞겠군.

③ ‘아지랑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에 해당하겠군.

④ ‘가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을 ‘가구쟁이’라고 쓰면 안 되겠군.

⑤ ‘개구장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인 ‘개구쟁이’라고 쓰면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겠군.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12)

< 보 기 1 >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며,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어 중 하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문장 성분 세 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 보 기 2 >

- ㄱ.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 ㄴ. 마당에 핀 꽃들이 정말 예쁘다.
- ㄷ. 오늘 날씨는 운동하기에 적합하다.
- ㄹ. 그는 소중한 것을 잠시 친구에게 주었다.
- ㅁ. 우주 왕복선이 정해진 궤도를 이탈했다.

	대상	설명
①	ㄱ의 '아니다'	'문제가'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므로 '아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ㄴ의 '예쁘다'	'정말'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ㄷ의 '적합하다'	'적합하다'는 '날씨는'이라는 주어와 '운동하기에'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ㄹ의 '주었다'	'주었다'는 주어 '그는'과 목적어인 '것을'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ㅁ의 '이탈했다'	'이탈했다'는 주어 이외에도 '정해진'이라는 관형어와 '궤도를'이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13)

< 보 기 >

단어가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 다의 관계가 형성된다.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원형 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확장 양상 중 하나는 '공간 → 시간 → 추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 ① 토끼는 앞발이 짧다. →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 →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
- ② 아이가 밥을 먹었다. →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 종이기가 기름을 먹어서 가볍지 않다.
- ③ 시냇물이 흘러간다. → 자료가 어떤 경로로 그에게 흘러갔는지 꼭 밝혀야 한다. →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간다.
- ④ 계곡이 깊은 곳에 있어서 찾기 쉽지 않다. → 밤이 깊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 여기서 또 만나다니 우리는 참 인연이 깊구나.
- ⑤ 그는 아무도 없는 단한 방 안에 있다. → 그는 '부장'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

14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 보 기 >

쓰- + -고 → 쓰고, 쓰- + -어 → 써
 굶- + -고 → 굶고, 굶- + -어 → 그어
 하- + -고 → 하고, 하- + -아 → 하여
 하얗- + -고 → 하얗고, 하얗- + -아 → 하애
 잡- + -고 → 잡고, 잡- + -아 → 잡아

- ① '쓰-'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 ② '굶-'이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간이 변하는군.
- ③ '하-'가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은 변하지 않는 반면 어미가 변하는군.
- ④ '하얗-'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미는 변하지 않는 반면 어간이 변하는군.
- ⑤ '잡-'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지 않는군.

15 <보기>를 바탕으로 명령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

< 보 기 >

ㄱ. 너 저기 가서 내 가방 좀 가져와.
 ㄴ.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목소리 좀 커라.(*)
 ㄷ.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겠어.(*)
 ㄹ. 학교에 좀 더 일찍 왔어.(*)
 ㅁ.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
 ㅂ.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

- ① ㄱ으로 보아, 명령문의 주어는 3인칭으로 나타나는군.
- ② ㄴ으로 보아,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만들 수 없군.
- ③ ㄷ과 ㄹ로 보아, 명령형에 '-겠-', '-았/었-'을 결합시킬 수 없군.
- ④ ㅁ으로 보아, 인용결의 명령형 어미로는 '-(으)라'가 쓰일 수 있군.
- ⑤ ㅂ으로 보아, 부정 명령을 나타낼 때에는 '말다'의 활용형이 쓰이는군.

16. <보기 1>의 ㉠와 ㉡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16)

〈보기 1〉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 중 ㉠이어 적기는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고, ㉡끝어 적기는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보기 2〉

㉠. :유·익·훈 ·이 :세 가·짓 ㉠:별·이오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요) -‘소학언해’

㉡.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뫼·씩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용비어천가’

㉢. 내 漢人사름의손뎡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
漢人말을 아노라
(나는 중국인한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 금이나마 중국어를 안다.) -‘노걸대언해’

㉣. 너·는 ㉣:高麗人:사·락·미어시·니 ·쑈 :엇·디 漢語·날· 오·미 잘·하·는·노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어를 잘하는가?) -‘변역노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 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17)

- ① 시장실패는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② 공공재와 달리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 ③ 공유자원의 비극은 재화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 ⑤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18)

< 보 기 >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는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 수단으로 각국에 일정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부여하고, 국가 간 또는 기업이나 기관 간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고 있다.

- 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보고 있군.
- ②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되면 공유자원은 점점 줄어들겠군.
- ③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유 재산처럼 거래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군.
- ④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군.
- 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없는 기업에는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여 공유자원의 균등한 이용을 유도하려는 의도군.

19. 밑줄 친 어휘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19)

- ① 노사 협상을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합니다.
- ② 추위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 ③ 어둠을 틈타서 공격해 올 적을 막아야 한다.
- ④ 어음을 막지 못해 그 기업은 결국 도산했다.
- ⑤ 땅주인이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20. ㉠에서 언급된 해결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20)

- 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수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렵 허가 지역을 운영한다.
- ②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범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한다.
- ③ 국립공원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이용 예약제를 실시하고, 일부 등산로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 ④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⑤ 어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고기를 잡는 저인망 그물 사용을 금지한다.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댔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이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

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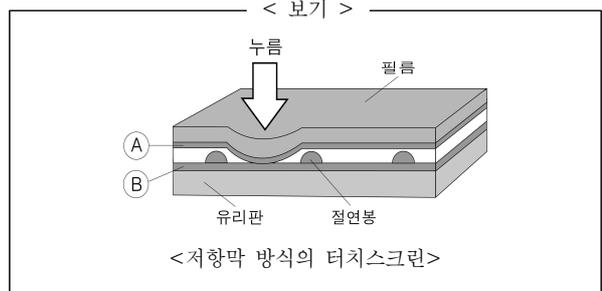
21.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1)

- ① 현황 소개 → 한계 언급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
- ② 화제 제시 →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향후 전망
- ③ 화제 제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향후 전망
- ④ 화제 제시 → 장·단점 설명 → 해결 방안 제시 → 향후 전망
- ⑤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해결 방안 제시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22)

- ① 터치스크린 기술의 핵심은 누르는 강도의 차이를 인식하는데 있다.
- ②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다.
- ③ 터치스크린은 전자종이의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 ④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 양면에 전도성 금속이 코팅되어 있다.
- ⑤ 저항막 방식은 접촉식 방식에 비해 정전기 등의 외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23. 위 글을 읽고 <보기>에서 '저항막'을 ㉠, ㉡와 같이 설치한 이유를 파악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23)



- 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도 정보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②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간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③ 휴대가 간편해지도록 터치스크린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⑤ 절연봉을 이용해 화면에 선이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화상은 화가들이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흔히 자화상이라고 하면 귀를 자른 고희의 자화상과 같이 강렬해서 한번 보면 절대 잊기 어려운 그림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자화상이라고 해서 얼굴만 그렸던 것은 아니다.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자화상도 있었다. 인생의 허무와 죽음, 무상 등의 의미를 골동품, 꽃, 음식, 해골 등의 상징물로 표현해 낸 그림들을 보면 화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얼굴 없는 자화상』의 대표적 사례로는 고희의 그림을 들 수 있다. ‘파이프가 있는 고희의 의자[그림(가)]’에서 고희는 자신의 의자를 아버지가 물려준 담배 파이프와 담배꽂이를 올려놓은 매우 소박한 의자로 그렸다. 고희는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려고 했을 정도로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림 속의 ‘의자’는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은 고희 자신을 상징한다.

‘고갱의 의자[그림(나)]’에는 고갱이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고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평소 고희는 예술가들이 함께 살며 작업을 하는 공동의 거처를 갖기 원했고, 활달하고 남성적인 성격을 지녔던 고갱이 자기의 제안에 동의했을 때 떨 듯이 기뻐했다. 말하자면 고희는 고갱에 대한 애착을 의자라는 상징물로 표현한 것이다. 불타는 초와 책이 놓인 화려한 ‘의자’는 고갱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는 고희 자신을 상징하며, 고갱이 와서 앉아 주기를 바라는 고희의 수동적이며 여성적인 성향을 보여 준다.



그림 (가) : 고희, ‘파이프가 있는 고희의 의자’



그림 (나) : 고희, ‘고갱의 의자’

정신분석학자 나게라도 ‘고갱의 의자’가 ‘양성적 갈등’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보았다. 그는 고희가 화려한 양탄자를 깔고 열 두 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려 벽에 거는 등 고갱이 머물 방을 정성스럽게 꾸민 사실에서 고희의 심리 속에 감추어진 여성성을 읽어 냈다. 나게라는 고희가 고갱을 면도칼로 공격하려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고희가 강한 성격을 가졌던 고갱을 만나 그의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그 노력이 실패하자 증오심에 사로잡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애증의 복합적인 감정이 고희로 하여금 ‘고갱의 의자’를 그리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얼굴 없는 자화상 속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화가의 심리가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얼굴 없는 자화상은 일반적인 자화상에 비해 화가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더 풍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위 글을 읽고 ‘얼굴 없는 자화상’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²⁴⁾

- ① 화가의 깊은 내면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림
- ② 화가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담고 있는 그림
- ③ 화가가 타인에게 창작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
- ④ 화가가 성취한 작가적 역량의 정수를 보여 주는 그림
- ⑤ 화가가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기 위해 그린 그림

25.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²⁵⁾

- ① 개인적 체험을 내세우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②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을 적용한다.
- ③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제시하고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 ④ 대상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활용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여 논지를 뒷받침한다.

26. 위 글의 내용과 <보기1>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림 (가), (나)를 <보기2>와 같이 감상하였다. 적절한 내용만을 골라 묶은 것은?²⁶⁾

< 보 기 1 >

- 고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고희의 동생 테오는 형이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동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고희는 이를 알고 충격을 받아 세 번씩이나 졸도했다.

< 보 기 2 >

- ㄱ. 그림 (가)의 장식 없는 ‘의자’는 테오를 대하는 고희의 형제애를 잘 보여 주고 있어.
- ㄴ. 그림 (가)에서 고희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심리를 ‘파이프’로 암시하고 있군.
- ㄷ. 그림 (나)의 화려한 ‘의자’에는 아버지와 고갱을 바라보는 고희의 시각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군.
- ㄹ. 그림 (나)의 ‘의자’에 담긴 고희의 태도는 애착이라는 점에서 테오에게 보인 태도와 비슷한 면이 있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다) ㉠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가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라)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타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마)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충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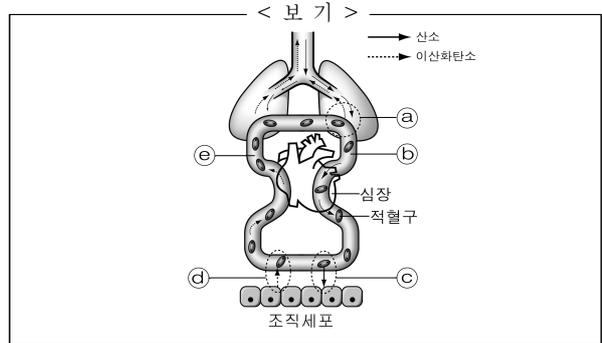
27.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7)

- ① (가) : 문답 형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그 과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 ② (나) :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제시한 후 그와 관련 있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의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마) : 숨을 쉬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들어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8. <보기>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8)



- ① ㉠에서는 적혈구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교환된다.
- ② ㉡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1분자에는 최대 산소 4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 ③ ㉢의 과정에서 적혈구로부터 산소가 분리되면 혈액의 pH가 높아지게 된다.
- ④ ㉣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적혈구로 들어가면 녹아서 탄산으로 변하게 된다.
- ⑤ ㉣에 들어 있는 혈장에는 탄산음이온이 용해되어 있다.

29. <보기>에 제시된 ㉠ ~ ㉣의 상황에서 ㉠이 일어나는 비율의 변화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29)

< 보 기 >

㉠.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한동안 숨을 참고 있을 때
 ㉡. 실내에 있다가 추운 실외로 나가 찬바람을 쐬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 숨이 가쁠 정도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	㉡	㉢
①	증가	증가	감소
②	증가	감소	증가
③	감소	증가	증가
④	감소	감소	증가
⑤	감소	증가	감소

30.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30)

- ① 흡입(吸入) ② 흡수(吸水) ③ 흡착(吸着)
- ④ 투입(投入) ⑤ 주입(注入)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사가 유별히 재미있는 날은 밥 먹는 것도 곧잘 잊는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로서, 재득은 오늘 무려 이천팔백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윤이 좀 박하기는 했지만, 빛은 분명히 물건이 썩 좋았다. 오전 중엔 한 봉에 백 원씩 팔다가, 너무나 잘 나가는 바람에 눈 딱 감고 값을 백오십 원으로 올려 받았다. 그런데 오십 원을 올려 받는데도 물건은 올라탄 차마다 기막힌 아다리[㉠]였다. 이런 날 밥 한 끼 굶는 것쯤은, 오히려 재득 쪽에서 황송해 할 지경인 것이다.

허청대는 다리를 바쁘게 옮겨 재득은 드디어 평택집 앞에 발을 세운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니 주인 김씨가 한 손을 훌쩍 들어 보인다. 점잖은 김씨가 손을 드는 것을 보니 뭔가 그에게 일이 있는 모양이다. 재득은 곧 밥상들을 돌아 김씨 바로 옆에 무너지듯이 털썩 앉는다.

“뭘니까?”

㉡ “왜 그래, 안색이?”

“점심을 굶었더니 사지에서 썩 맥살이 빠지는군요.”

“사람 참……! 밥만은 제때에 찾아 먹어야지.”

말을 마친 주인 김씨가 곧 품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준다.

“두 시쯤 왔네. 차부*로 나가 봤더니 오늘은 밖으루 들었다더군.”

방을 자주 옮기는 탓으로, 재득은 편지를 띄울 때면 늘 평택집 주소를 이용한다. 밥을 단골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훨씬 자기 소재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편지는 **예측한 대로** 시골집에서 올라온 것이다. 연필로 씌어진 발신인을 보니 ㉢ 이번에도 역시 여편네 이름이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다가, 재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볍게 떨기 시작한다.

재득이 드디어 편지를 다 읽고, 편지지를 접어 안주머니에 꼭 찌른다. 묵묵히 재득을 바라보던 김씨가, 눈치가 이상했던지 조심스레 입을 연다.

“안 좋은 편진가?” / “그저 그래요.”

(중략)

제대 후 재득은 고향에 돌아가자 농사일을 때려 엮고 은행 돈을 빌려 **대대적으로** 양계(養鷄)를 시작했다. 농사일은 평생을 해 봐야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는 것이다. 뻔한 골짜기에 반발을 느낀 재득은, 여벌 모가지 걸어 놓고 ㉣ **한바탕** 씩씩하게 말버등을 쳐보기로 했던 것이다. 신문과 방송에는 성공담도 술하게 많다. 그러나 그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특출나게 아다리가 맞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이다. 닭은, 낱으라는 알은 안 낳고 재득에게 빛과 한숨과 절망만을 낳아 주었다. 사료값은 오르고, 알값은 뚱값이고 닭은 닭대로 병에 걸려 하루에 수십 마리씩 바지개로 죽어 나간 것이다.

은행에 잡혔던 집과 논밭은 장마철에 검불 떠내려가듯 재득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떠내려갔다. 그러나 빛은 은행뿐 아니라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마을 안 이웃들에게도 삼십여 만원이 ㉤ **뽐뽐**하게 깔려 있었다. 집도 절도 없는 재득 부부는 이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재득이 밤중에 고향에서 튼 것은 바로 이런 무렵이다. 어차피 그는 마을에 있어 봤자

삼십만 원 빛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밝은 빛은 보기 힘들다. 부부가 다 되면 죽일 놈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재득은 아내를 볼 모로 남겨 둔 채 자기 혼자만 야간 도주를 한 것이다.

고향에서 튼 지 석 달 만에 재득은 드디어 정류장에 터를 잡았다. 재득은 부지런히 벌었다. 형섭이나 낙표처럼 그는 입담이 걸지 못하다. 그러나 **착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재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 **매달매달 꼬박꼬박** 몇 푼의 돈을 고향으로 부칠 수 있었다. 아내 역시 고향에서 놀고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다. 예뻐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말없고 부지런한 보통의 시골 여자였다. 빛 삼십만 원에 볼모로 잡힌 그녀는 남의 집 발과 눈에서 뼈가 녹아나게 샅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안팎의 노력은 삼십만 원의 이자 가리는 데도 뽐뽐하게 힘이 부쳤다. 고향에 있으나 밖으로 나오나 재득의 삼십만 원 빛은 여전히 한 푼도 줄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오늘 도착한 아내의 편지는 모든 희망을 산산이 때려 부렸다. 고향에 부쳐진 오만 원은 수많은 빚쟁이들 사이에서 **손에 붙은 밥풀**이 되었다. 사정 한 마디 건네기도 전에 그 돈은 빚쟁이들 사이에서 ㉦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찾아 버린 것이다. 아내는 드디어 견디다 못해 자기도 고향을 뜨겠다고 했다. 이 말은 이미 아내로부터 오래 전에 나온 말이다. 이래도 저래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서울로 올라가 당신 곁에서 식모살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득의 답장이 오면 즉시 행선지를 정해 뜨겠다고 얘기였다. 뜨게 되면 다시 연락을 주마 하고 아내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라는 말로 편지 끝을 멋지게 맺은 것이다.

㉧ “아니 왜 그래?”

재득의 뚝배기에 음식이 반이나 남은 것을 보고, 김씨가 의아한 눈길로 재득의 얼굴을 뻔히 쳐다본다. 재득은 그러나 실췌 웃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선다.

“장부 주십시오.”

“점심두 굶었다며 왜 벌써 손갈을 놓나?”

“속이 좀 안 좋군요.”

“먹은 게 있어야 속이 안 좋지?”

“실은 낮에 찰떡을 몇 개 사먹었어요.”

사인을 하고 장부책을 돌려준 후 재득은 곧 가방을 집어 든다. 그러나 그가 몸을 돌리자 김씨가 문득 나직하게 입을 연다.

“재득이…….” / “예?”

“오늘 안 되겠나……?” / “뭘 말입니까?”

“낮에 물건을 좀 들여놔네. 돈이 안 되면 할 수 없구…….”

재득은 퍼뜩 정신이 든다. 벌써 열흘 치 밥값이 다 찬 것이다.

“깜박 잊었군요. 모두 얼마죠?” / “삼천백 원일세.”

재득은 곧 주머니를 뒤적여 돈 이천 원을 꺼내 든다.

“모두 이거뿐입니다. 나머지 천백 원은 내일 다시 채워 드리죠.”

“고맙네. 백 원은 봐 두게…….” /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잘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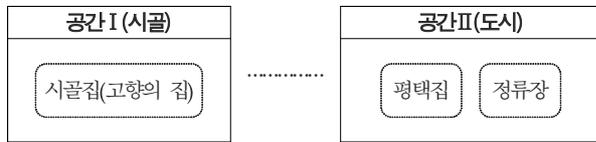
평택집을 나와 찬 공기를 마시자 재득은 그제야 정신이 약간 맑아진다. 밝은 이미 어둠이 짙어 상점들의 불빛이 휘황하다. 여

인숙을 지나 담뱃가게 앞에 다다르자 재득은 오십 원을 주고 남대문 한 갑을 받아 든다. 평택집에 밥값 이천 원을 물었더니 재득의 주머니는 다시 아침처럼 빈털터리다. 문득 재득의 침침한 눈앞에 주인집 여편네의 파랗게 독 오른 얼굴이 떠오른다. 저녁에 주마고 약속을 했는데 재득에겐 오늘도 역시 빈손밖에는 들고 갈 것이 없다.

- 홍성원, 「흔들리는 땅」 -

* 아다리 : '단수(單手)'의 일본어. 여기서는 '딱 들어맞음'의 뜻.
* 차부(車部) : 자동차의 시발점이나 종착점에 마련된 차의 집합소.

31. 위 글에 나타난 두 공간의 의미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



- ① 공간I에서 진 '빛'은 공간II에서 '재득'의 삶을 엿때는 이유가 된다.
- ② 공간I의 '시골집'과 공간II의 '평택집'은 모두 '재득'이 인간적인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③ 공간II에서의 생활이 공간I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득'에게 두 공간은 매한가지이다.
- ④ '평택집'을 수신처로 하여 소식을 주고받는 편지는 공간I과 공간II의 가족 소식을 이어주는 수단이 된다.
- ⑤ '재득'에게 공간I의 '시골집'은 과거의 삶의 터전이고, 공간II의 '정류장'은 현재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이다.

32. 위 소설을 읽은 어떤 독자가 다음의 시를 떠올렸다고 할 때, 소설 속 상황과 시의 상황을 연관 지은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2)

소설 속 상황	감태준, '철새'
양계업마저도 실패한 뒤 빛만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암담해짐.	바람에 몇 번 뒤집힌 새는 / 바람 밑에서 놀고 / 겨울이 오고 / 겨울 뒤에서 더 큰 겨울이 오고 있었다
궁핍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뜨고자 함.	"한번..." / 우리 사는 마담가 등지를 돌아보며 / 아버지가 말했다 / "고향을 바꿔 보자."
무거운 마음으로 야간 도주해서 떠나감.	내가 아직 모르는 길 앞에서는 / 달려갈 수도 / 움직일 수도 없는 때, // 아버지는 바람에 묻혀 / 날로 조그맣게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가는 아버지를 따라 / 우리는 온몸에 날개를 달고 / 날개 끝에 무거운 이별을 달고 /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일터를 잡은 다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함.	환한 달빛 속 / 찻눈이 와서 하얗게 누워 있는 들판을 가로질러 / 내 마음의 한가운데 / 아직 누구도 날아가지 않은 하늘을 가로질러 / 우리는 어느새 / 먹물 속을 날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기대했던 바와 달라 뜻을 이루지 못함.	"조심해라, 애야." / 앞에 가던 아버지가 먼저 발을 헛딛었다. / 발 헛딛은 자리, / 서울이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3)

- ① ㉠ : '예측한 대로'와 연결 지어 볼 때, 편지가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음이 강조된다.
- ② ㉡ : '대대적으로'와 연결 지어 볼 때,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행동이 부각된다.
- ③ ㉢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과 연결 지어 볼 때,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들을 접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가 강조된다.
- ④ ㉣ : '착실하고 꼼꼼한'과 연결 지어 볼 때, 성실한 성격의 인물이 차곡차곡 재산을 불려가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⑤ ㉤ : '손에 붙은 밥풀'과 연결 지어 볼 때, 인물(아내)이 일을 의외로 손쉽게 처리했음이 강조된다.

34. ㉠와 ㉡의 발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4)

- ① ㉠은 왜 화가 났는지 눈치를 보며 던지는 질문이다.
- ② ㉠은 돈 벌기 위해 점심까지 굶고 다니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질문이다.

- ③ ⑥는 밀린 밥값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담긴 질문이다.
- ④ ⑥는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밥을 먹다 마는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 ⑤ ㉠와 ㉡는 딱한 처지에 있음에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 상대를 측은히 여기며 던지는 질문이다.

【39-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흥운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댢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운동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 시우쇠 :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엄매입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 듯 흥가분한 해방감. 삼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흥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無所有)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 으로는 성에 차 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盟邦)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 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향(向)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욕심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법정, 「무소유」 -

【40-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뜰 앞에 나뭇잎 하나 지자 庭前一葉落
 침상 아래 온갖 벌레 우네. 床下百蟲悲
 훌쩍 가시는 입 잡을 수 없는데 忽不可止
 유유히 어디로 가시나요. 悠悠何所之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片心山盡處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孤夢月明時
 남포의 봄 물결 푸를 때 南浦春波綠
 임이여 훗날의 기약 어기지 마소. 君休負後期

- 정지상, 「임을 보내며 [送人]」 -

(나) ㉠풍상(風霜)* 셋거 틈 날의 잇깃* 편 ㉡황국화(黃菊花)를
 은반(銀盤)*의 것거 다마 옥당(玉堂)*으로 보내실사
 ㉢도리(桃李)*야 꽃이온 양 마라 님의 쓰들 알괘라

- 송순 -

(다)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路)이 무척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 리 님 이시리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귀 벗인가 흐노라

- 신희 -

*풍상: 바람과 서리. *잇깃: 이제 막, 갓. *은반: 은쟁반.
 *옥당: 홍문관. *도리: 복숭아꽃과 오얏꽃. *시비: 사립문.

4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0)

- ① (가)~(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다)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구체적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 ③ (가), (나)와 달리, (다)는 설의법을 통해 지배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나), (다)와 달리, (가)는 비교를 통해 대상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41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1)

- ① 지는 '나뭇잎'과 '온갖 벌레'의 우는 소리가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② '훌쩍 가시는 입'은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 ③ '달 밝은 밤'은 화자가 고향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 ④ '봄 물결'은 화자의 현재 처지를 상징한다.
- ⑤ '훗날의 기약'은 화자가 지닌 희망의 근거가 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2) [3점]

< 보 기 >

고전 시가를 감상하다 보면, 그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알아야 특정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다. (나)는 명종이 옥당에 국화를 하사하며 노래를 지어 올리라고 했을 때 마침 당직이던 송순이 지은 작품으로, 명종은 이를 읽고 신하의 바른 도(道)를 노래했다고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다)는 신희가 1613년 계축옥사 당시 사색당과 중 하나였던 대북파에 의해 정계에서 쫓겨나 유배당했을 때 유배지인 춘천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① ㉠은 시련이나 역경 같은 부정적 상황을 상징하는군.
- ② ㉡은 임금에 대한 충의와 절개를 지켜 나가는 신하를 의미하는군.
- ③ ㉢은 고난 앞에서 쉽게 굴복하여 변절하고 마는 신하들을 빗댄 표현이군.
- ④ ㉣은 자신이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유배지와 정치적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속세 사이의 연결 통로이겠군.
- ⑤ ㉣에는 자신을 유배시킨 반대파와 화해하고 정계에 복귀하려는 욕망이 드러나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나귀를 탄 소년 하나가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병영 문 밖에 와 뽕기를 청한다 하기에,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당상에 올라와 인사를 했다.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길동인지라, 기쁘고도 놀라워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길동아, 네가 한번 집을 떠난 뒤 생사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으셨다.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죄를 짓느냐? 이 때문에 성상께서 진노하시어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도록 하셨다. 이는 피치 못할 죄이니 너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 왕명에 순종해라.”

하고 말을 마치며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길동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부형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당초에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말해 봐야 쓸데없거니와, 이제 소제(小弟)를 묶어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한편 슬퍼하면서 한편 공문을 쓰고는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차꼬를

채워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다.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호송하게 한 뒤, 주야로 갑절의 길을 가도록 시켜 올려 보냈다. ㉔각 읍 백성들은 길동의 재주를 들었는지라, 잡아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을 하였다.

이때, ㉕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서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임금이 놀라서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으고, 몸소 죄인을 다스리는데, 여덟 명의 길동을 잡아 올리니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말하기를,

“네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하며 서로 싸우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중략)

하루는 길동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절하고 말했다.

“제가 지금은 진짜 길동이오니, 형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십시오.”

감사가 이 말을 듣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절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동기인데 부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꼴이, 어찌 애답지 않으랴. 네가 이제 진짜 몸이 와서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혈점이 있었다. 즉시 ㉖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운 뒤,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싸고 풍우같이 몰아가도,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여러 날만에 서울에 다다랐으나, 대궐 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 번 몸을 움직이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올라가며, 나는 듯이 운무에 묻혀 가 버렸다. 장교와 모든 군사가 어이없어 다만 공중만 바라보며 넋을 잃을 따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보고 하니, 임금이 듣고,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랴?”

하며, 크게 근심을 했다.

이에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뢰기를,

“길동의 소원이 병조 판서를 한 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겠다는 것이라 하오니, 한 번 제 소원을 풀면 제 스스로 은혜에 감사 하오리니, 그때를 타 잡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라고 했다. ㉗임금이 옳다 여겨 즉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고 사대문에 글을 써 붙였다.

그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고관의 복장인 사모관대에 서대를 띠고 덩그런 수레에 의젓하게 높이 앉아 큰 길로 버젓이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이제 홍판서 사은(謝恩)하러 온다.”

라고 했다.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이해 쉼내에 들어간 뒤, 여러 관원들이 의논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끼와 칼을 쓰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이도록 하자.”

하고 약속을 하였다. ㉘길동이 쉼내에 들어가 엄숙히 절하고 아뢰기를,

“소신이 죄악이 지중하운데,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면서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부디 만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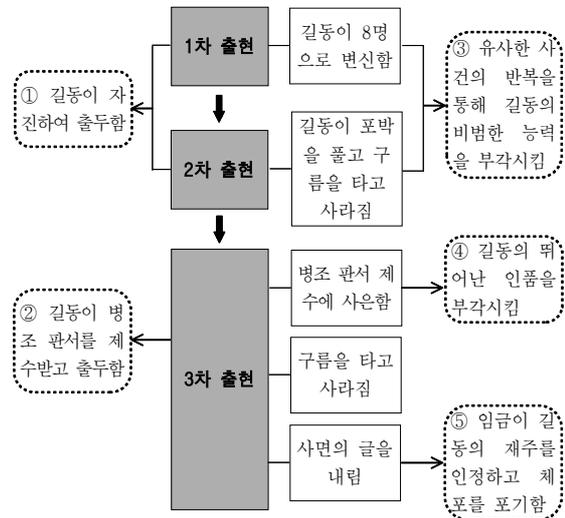
강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싸여 가니, 그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임금이 보고 도리어 감탄을 하기를,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급에 드문 일로다. 제가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다시는 폐 끼칠 일이 없을 것이요, 비록 수상하기는 하나 대장부다운 통쾌한 마음을 가졌으니 염려 없을 것이로다.”

하고, 팔도에 사면(赦免)의 글을 내려 길동 잡는 일을 그만두었다.

- 허균, 『홍길동전』 -

43. 위 글의 내용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였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3)



44. [A]와 [B]에 나타난 두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4)

- ① [A]의 감사는 감정에 호소해 가며 길동을 나무라고 있다.
- ② [A]의 감사는 임금의 명령을 거론하며 길동을 설득하고 있다.
- ③ [B]에는 길동이 생각하는 갈등의 이유가 드러나 있다.
- ④ [B]에서 길동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회한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에서 길동은 지난 일은 불문에 부치자며 스스로 구급되고자 한다.

45. <보기>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

— < 보 기 > —
홍길동은 신출귀몰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 ① ㉠ : 소문이 방방곡곡에 자자하게 퍼졌을 만큼 길동이 신출귀몰한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 : 백성들은 물론 조정에서조차 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 경계가 철통같다는 것은 길동의 신출귀몰한 재주를 조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음을 말해 준다.
- ④ ㉣ : 조정에서 계략을 꾸며 가면서 길동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길동이 신출귀몰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⑤ ㉤ : 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도 결국 위기에 봉착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 준다.

1)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상대의 주장을 예상하여 논박함

반대 2는 '찬성 측의 그러한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라고 하면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 찬성 측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토론의 배경과 논제 소개

사회자는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토론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점수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밝히고 있다.

② 확인: 토론자의 토론 내용 요약 및 정리

사회자는 토론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을 뿐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확인: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한 주의

토론 참여자들은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회자도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지는 않다.

④ 확인: 상대의 발언 인정

찬성 2는 반대 1이 말한 '봉사 활동을 하는 동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자신의 주장과 연관성이 없는 근거

찬성 1은 봉사 활동 점수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여가 시간 부족을 근거로 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좀 더 다양한 사례 제시

찬성 2는 다류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해당되므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③ 확인: 주장과 관련된 내용 인용

반대 1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확인: 사실 논거

사실 논거는 일반화된 지식과 정보,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 정확한 통계 수치 등을 의미한다. 반대 2는 설문 조사 결과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확인: 논거의 신뢰성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과 표본 수를 명확히 밝힐 때, 논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 2는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과 표본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

반대 2가 제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를 잇는 채로 봉사 활동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의 점수화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교육이 수행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① 확인: 체험 활동을 대학 입시에 반영함

체험 활동을 대학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에 해당한다.

③ 확인: 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굳이 봉사 활동을 점수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자발적인 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찬성 측이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확인: 봉사 활동 점수화의 긍정적 효과

봉사 활동 점수화의 긍정적 효과는 찬성 측의 의견으로 적절하다.

⑤ 확인: 의무적 봉사 시간을 늘려야 함

학생들의 의무적인 봉사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찬성 측의 의견으로 적절하다.

4)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완곡하고 우회적인 거절

수행 평가 보고서를 아직 다 못 썼다는 준석의 말은 공원에 놀러 가자는 혜연의 말에 대한 완곡하고 우회적인 거절로 해석할 수 있다. 거절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신 거절의 뜻을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직접적인 거절

그날은 어렵겠다는 준석의 말은 축제 보러 오라는 혜연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확인: 직접적인 거절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준석의 말은 영화 보러 가자는 혜연의 말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에 해당한다.

③ 확인: 자신의 상태 설명

준석의 말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말로 볼 수 있다.

④ 확인: 거절이 아닌 표현

준석의 말은 혜연의 말에 대한 거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5)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과거와 현재의 대조

영호는 '고민이 뭐니?'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답하여, 자신의 문체 상황이 무엇인지 선생님께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

내일이 시험인데 미처 못 한 공부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확인: 상대방과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

선생님은 집보다는 학교에서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다는 영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④ 확인: 요약을 통한 반응

㉔은 자신이 좋아하는 국어, 영어 성적은 원하는 만큼 나오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수학, 과학 성적은 늘 불만족스럽다는 영호의 말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확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좋아하는 과목에만 공부가 치우치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영호가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6)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외부인에게도 개방

‘(나)-1’은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다)-1’은 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인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논의의 필요성

(가)에서 학교 도서관이 현대화 사업을 했음에도 단순한 ‘도서 대여점’의 역할만 한다는 문제점과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② 확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재

(가)에서는 학교 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 ‘(나)-2’에서는 사서 교사 배치 현황이 저조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확인: 독서 프로그램 개발

(가)에서는 학교 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수업과 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다)-2’에서는 도서관의 특색을 살리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사서 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

‘(나)-2’에서는 사서 교사 배치 현황이 저조한 통계 자료를 통해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고, ‘(다)-3’에서는 사서 교사를 충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서 교사의 임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빛 좋은 개살구’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학교 도서관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시설은 좋아졌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해결 방안으로 (가)에서는 학교 수업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개 밭에 편자’는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제에 어울리

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학교 도서관이 도서 대여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실행해서 얻게 되는 결과에 해당한다.

②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찬물에 기름 돌듯’은 서로 화합하여 어울리지 아니하고 따로 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제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지만, 해결 방안이 아니다.

⑤ 확인 1: 문제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속담

‘아랫돌 빼서 잇돌 괴고 잇돌 빼서 아랫돌 괴기’는 일이 몹시 급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제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이 아니다.

확인 2: 구체적 해결 방안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8)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더 알고 싶은 점

글의 내용을 보면 ‘제부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여행지를 정하는 과정

글쓴이는 얼마 전에 다룬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여행을 갈 만한 장소를 찾다가 텔레비전에 방영된 제부도를 알게 되어 여행을 가고 있다.

② 확인: 여행지의 특성과 여행의 의의

글쓴이는 밀물과 썰물로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여행을 통해 친구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③ 확인: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

글쓴이는 제부도 주민의 말과 파도, 갈매기, 전망대 등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확인: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

글쓴이는 여행을 다녀오면서 친구와 이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여행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9) 2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광고의 의미 해석, 문제의식 제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냄

‘과제의 초고’를 보면, 글쓴이는 1문단에서 해당 공익 광고가 전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2, 3문단에서 문명의 도구가 오히려 흥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다음, 4문단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광고에 대한 다양한 해석

‘과제의 초고’에서 해당 공익 광고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확인: 일화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환기

‘과제의 초고’에서는 해당 공익 광고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확인: 광고가 다루는 화제에 대한 통념 반박

‘과제의 초고’에서는 해당 공익 광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광고가 다루는 화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⑤ 확인: 광고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언급

‘과제의 초고’에서는 해당 공익 광고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0)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글의 통일성 유지에 대한 판단

㉔은 바로 앞 문장인 ‘우리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와 내용상 관련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㉔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주술 호응을 고려

‘이 광고는’이라는 주어를 고려해 볼 때, ‘거듭해 왔다’가 아닌 ‘거듭해 왔음을 보여 준다’가 더 적합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내용상 흐름을 고려

내용상 흐름으로 보아 커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커서가 곧 인터넷을 상징한다는 것을 언급해야 자연스럽다.

③ 확인: 중복된 피동 표현 고치기

‘전개되어졌을까’에서는 중복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전개되었을까’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확인: ‘다르다’와 ‘틀리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케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의미이므로, ㉔은 ‘달라질’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5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개구장이’와 ‘개구쟁이’

(보기)에 제시된 규정의 [붙임 2]를 보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했다. ‘개구쟁이’는 기술자가 아니므로, ‘개구쟁이’로 쓰는 것이 맞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아기’와 ‘애기’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확인: ‘-내기’와 ‘-나기’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내기’의 경우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내기’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③ 확인: ‘아지랑이’와 ‘아지랭이’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 ‘아지랑이’가 표준어이고 ‘아지랭이’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아지랭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④ 확인: ‘가구장이’와 ‘가구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가구장이’는 기술자이므로 ‘가구쟁이’라고 쓰면 안 된다.

12) 3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적합하다’의 자릿수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를 말한다. ‘적합하다’는 ‘날씨는’이라는 주어 이외에 ‘운동하기에’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되므로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아니다’의 자릿수

‘아니다’는 주어(‘이것은’)와 보어(‘문제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확인: ‘예쁘다’의 자릿수

‘예쁘다’는 주어(‘꽃들이’)만을 필요로 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 확인: ‘주었다’의 자릿수

‘주었다’는 주어(‘그는’), 목적어(‘것을’), 부사어(‘친구에게’)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⑤ 확인: ‘이탈했다’의 자릿수

‘이탈했다’는 주어(‘우주 왕복선’), 목적어(‘궤도를’)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13)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공간 → 시간 → 추상

‘계곡이 깊은 곳에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에서 ‘깊은’은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밤이 깊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에서 ‘깊어서’는 시간의 의미를 지니며, ‘여기서 또 만나다니 우리는 참 인연이 깊구나.’에서 ‘깊구나’는 추상적 의미를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기본적 의미 → 비유적 의미 → 관용적 의미

‘토끼는 앞발이 짧다.’에서 ‘짧다’는 기본적 의미를 지니고,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에서 ‘짧다’는 비유적 의미를 지니며,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에서 ‘짧다’는 관용적 의미를 지닌다.

② 확인: 사람 → 동물 → 무생물

‘아이가 밥을 _먹었다._ → 사과에 벌레가 많이 _먹었다._ → 중이가 기름을 _먹어서_ 가뻐지 않다.’에서는 ‘사람 → 동물 → 무생물’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다.

③ 확인: 액체 → 자료 → 시간

‘시냇물이 _흘러간다._ → 자료가 어떤 경로로 그에게 _흘러갔는지_ 꼭 밝혀야 한다. → 세월이 참 빨리도 _흘러간다._’에서는 ‘액체 → 자료 → 시간’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다.

⑤ 확인: 물리적 위치 → 사회적 위치 → 심리적 위치

‘그는 아무도 없는 닫힌 방 안에 _있다._ → 그는 ‘부장’이라는 중요한 위치_에 있다._ →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아직도 내 마음 속_에 있다.’에서는 ‘물리적 위치 → 사회적 위치 → 심리적 위치’의 의미 확장 양상이 나타난다.

14)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어간과 어미의 변화

‘하얗-’이 어미 ‘-아’와 결합하면 어간 ‘하얗-’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어미 ‘-아’도 변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어간의 모음이 탈락

‘쓰-’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써’가 되는 과정에서는 ‘쓰-’의 모음 ‘-’가 탈락한다.

② 확인: 어간의 변화

‘긋-’이 어미 ‘-어’와 결합하여 ‘그어’가 되는 과정에서는 ‘긋-’이라는 어간이 변화한다.

③ 확인: 어미의 변화

‘하-’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하여’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미 ‘-아’가 ‘-여’로 변화한다.

⑤ 확인: 어간과 어미의 불변

‘잡-’이 어미 ‘-아’와 결합하여 ‘잡아’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간 ‘잡-’과 어미 ‘-아’ 모두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15) 1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명령문의 주어

‘너 저기 가서 내 가방 좀 가져와.’에서 주어는 2인칭 청자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청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형용사의 제약

‘커라’는 형용사 ‘크다’의 어간 ‘크-’와 ‘-어라’의 결합형으로, ‘커라’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만들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겠-’이나 ‘-았/었-’과의 결합의 제약

‘공부하겠어라’, ‘왔어라’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명령형 어미가 ‘-겠-’이나 ‘-았/었-’과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인용절의 명령형 어미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라는 문장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골고루 먹으라고’는 인용절에 해당한다. 이때 ‘-(으)라’가 인용절의 명령형 어미로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확인: ‘말다’의 활용형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부정 명령에 해당하는데, ‘마라’는 ‘말다’의 활용형에 해당한다.

16) 4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에서는 ‘브름’과 ‘애’의 결합형을 ‘브르매’로 적었고, ㉡에서는 ‘高麗人:사·롬’과 ‘이어서·니’의 결합형을 ‘高麗人:사·르·미어서·니’로 적었으므로, ㉠과 ㉡ 모두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은 ‘별이오’와 같이 형태소를 분리하여 적었으므로 끊어 적기에 해당하고, ㉣은 ‘漢人말을’과 같이 적었으므로 끊어 적기에 해당한다.

17) 2

[출제의도] 본문에서 언급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하고,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별된다.

18) 3

[출제의도]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깨끗한 공기라는 공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유 재산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를 사유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9) 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과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지 못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② 추위 따위가 어떤 대상에 미치지 못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③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 따위를 버티어 지키다는 의미로 쓰였다. ④ 돈을 갚거나 결제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⑤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20) 2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공유자원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②이다. 치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안은 공공재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유자원을 예방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21) 3

[출제의도] 글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며 독해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문단에서 터치스크린이 어떤 장치인지 소개하면서 화제를 제시한 후,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터치스크린의 작동 원리를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 문단에서는 터치스크린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터치스크린이 다양한 기술적 어려움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것이며 장차 ‘전자 종이’에 적용되어 미래 생활을 이끄는 기술이 될 것이라 사실을 전망하고 있다.

22) 1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첫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을 댔을 때, 그 사실을 분석해 감지하는 데에 있다. 누르는 강도의 차

이를 인식하는 기술은 핵심 기술에 부가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것이다.

23) 1

[출제의도] 설명된 기술의 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접촉했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저항막 방식의 장점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여씌운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힘으로써 구현된 것이다. 두 저항막 사이는 절연봉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름 위를 누르면 간격이 사라지면서 저항막이 맞닿아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신호를 분석해 접촉 위치를 감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접촉식 방식과 달리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접촉을 해도 작동한다.

24) 1

[출제의도] 핵심 화제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지문은 고희의 의자 그림들을 ‘얼굴 없는 자화상’으로 보면서 그 속에 숨은 고희 특유의 정신적 세계를 분석한 글이다. 글쓴이는 고희 자신의 의자를 그린 그림과 고갱의 의자를 그린 그림에서 고희 자신의 정체성과 여성적 성향을 분석해 낸다. 글쓴이는 고희의 의자에 놓인 파이프를 통해 아버지의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고희의 내면을 읽고 있으며, 고갱의 의자를 통해 강한 남성성에 애착을 느끼는 고희의 여성성을 발견한다. 이런 맥락에서 얼굴 없는 자화상은 화가의 깊은 내면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25) 5

[출제의도] 글쓴이가 글을 쓰기 위해 어떤 글쓰기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얼굴 없는 자화상은 이 글의 중심 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글쓴이는 특히 고희가 그린 두 그림에 초점을 맞춰 고희의 내면 세계를 분석한다. 글쓴이는 ‘고희의 의자’에서 그 아버지의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고희의 모습을 발견했으며, 고갱의 의자에서 남성성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고희의 양성적 갈등을 읽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나게라의 이론을 소개하며 고희의 심리를 분석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여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26) 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1>에는 고희의 개인사적 체험이 등장한다. 고희는 목사였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강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으며 평생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희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파이프는 아버지를 상징하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그림(가)와 연결하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가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희의 동생 테오의 일화를 통해서도 고희가 가진 애착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지문 내용을 보면 고희는 동료 화가였던 고갱에게 이런 애착을 느꼈음을 알 수 있

다.

27) 3

[출제의도] 문단의 핵심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이 어떤 여건에서 잘 나타나는지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문단의 핵심 내용은 포화반응이 해리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많고 pH가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28) 3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포화반응을 보이지만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해리반응을 보인다. ㉠의 과정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되는 해리반응을 나타낸다. 즉 ㉠의 과정이 일어나는 조직세포 부근에는 산소가 적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적혈구에서 산소가 분리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 pH가 낮아지게 된다.

29) 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ㄱ 상황처럼 숨을 참으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ㄴ과 같이 격한 운동을 해도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ㄴ과 같은 상황에서는 찬바람을 쐬으로써 포화반응 비율이 높아진다. 즉, ㄱ, ㄴ의 상황에서는 포화반응의 비율이 감소하고 ㄴ의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것이다.

30) 1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들이마시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흡입(吸入)’이다. ‘흡입’은 ‘기체나 액체 따위를 빨아들임’을 의미한다.

31) 2

[출제의도] 소설 속 공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공간은 크게 시골과 도시이다. 주인공 ‘재득’은 시골에서 야간 도주(야반 도주)해서 떠나와 서울에 정착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데 ‘방’을 자주 옮겨 다닌다는 표현으로 보아 도시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골집’과 ‘평택집’ 모두 ‘재득’이 인간적인 측면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낀다고 판단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32) 4

[출제의도] 소설 속의 상황을 시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시(김태준의 『철새』)에는 힘든 삶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가족의 사연이 담겨 있다. ‘떡물’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고 있지만 미래 상황이 캄캄함을 암시하는 시어이다. 이는 야간도주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재득’의 상황과 유사하지, 일터를 잡은 다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

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33) 2

[출제의도] 소설의 표현과 의미 맥락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대적으로’와 ‘한바탕 씩씩하게’라는 말을 연결 지어보면 ‘재득’이 농사일을 망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양계업을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4

[출제의도] 발화에 담겨 있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과 ㉡의 표면적인 발화는 유사하지만 ‘김씨’가 이유를 묻는 근거는 다르다. ㉠은 ‘재득’이 ‘무너지듯이 털썩 앉는’ 모습에서 안 좋은 기색을 염려하여 묻는 물음이고, ㉡는 편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음식을 반이나 남기고 일어나는 모습이 의아스러워 묻는 물음이다. 그런데 “안 좋은 편지인가?”라는 ‘김씨’의 말로 보아, ㉡에는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밥을 먹다가 그만 두는지 의아스러운 심리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5) 2

(가)는 화자가 값싼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를 원하고 있고, (다)는 소유에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즉, 부정적인 모습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다.

36) 3

[출제의도] 제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목은 ‘대장간의 유혹’이다. 이때 ‘대장간’은 어떤 공간이고,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제목을 통해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대장간’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많은 쇠를 단련하여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도 그런 공간에서 연단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유혹’은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말인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진정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갈망을 ‘유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37) 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똥덩이’는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비유한 대상이다. 마치 ‘직지사의 해우소’에서 아득하게 떨어지는 존재, 배출해야만 깨끗하다고 느끼는 존재를 의미한다. (나)에서 ‘가래’ 역시 화자가 ‘뉘음’으로써 정화된 느낌을 지닐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 두 소재의 공통점은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존재이며, 화자의 부정적인 속성, 또는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38) 2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나)의 ‘눈은 살아 있다’는 매우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눈’은 자연물로서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자료에 의해 ‘순수, 결백’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그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현실 비판의 능력을 지닌 순수한 생명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39) 3

[B]에서 난초 때문에 이웃을 방문하는 도중에 돌아온 것을 개인의 내적 갈등으로 볼 수는 있으나, [C]에서는 난초를 친구에게 주어 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으므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C]에서 친구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40) 3

(다)에서는 ‘날 츠즈 리 뉘 이시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한가로운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는 설의법이 활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41) 4

‘봄 물결’이 화자의 현재 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은 남포의 봄 물결이 푸를 때 돌아오겠다는 기약을 남기고 훌쩍 떠나 버렸고, 그로 인해 화자는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봄 물결’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재회의 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일 뿐 화자의 고독한 현재 처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42) 5

㉠의 ‘일편명월’, 즉 한 조각의 밝은 달은 정치적 반대파와 화해하고 정계에 복귀하려는 신희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희가 유배지에서 느꼈을 고독감을 위로하는 존재이자 그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상이다. (나)에 관한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송순은 명종이 옥당에 하사한 노란 국화꽃이 복숭아꽃이나 오얏꽃처럼 좋은 환경에서만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바람과 서리가 섞여 치는 날에 피어난 꽃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명종은 (나)가 신하의 바른 도를 노래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나)에서 ㉠은 시련이나 역경 같은 부정적 상황을 상징하고, ㉡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의미하며, ㉢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신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 ㉡, ㉢은 모두 적절한 이해이다.

한편 (다)에 관한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신희는 ‘산촌’인 춘천에 유배되어 살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찾을 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립문조차 열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눈이 와서 돌길도 눈에 파묻혔지만 신희는 한 조각 밝은 달만이 자신의 벗이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때 ㉣은 유배지와 속세 사이를 이어 주는 통로일 것이며, 그 속세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당파 간 정치적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 역시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43) 4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은 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이 부각된 부분이다. 이 글은 길동의 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본문의 뒷부분에서 길동이 임금으로부터 병조 판서를 제수 받는 장면은 길동의 뛰어난 인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병조 판서 제수는 길동

의 소원을 전해 들은 임금이 길동을 잡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44) 4

[출제의도] 지정된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드러나는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A와 B는 길동의 이복 형제인 인형과 길동이의 대화이다. A에는 자신을 찾아온 길동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인형의 복합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고, B에는 길동의 내면적 갈등과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길동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후회하며 한스러워하고 있는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45) 5

[출제의도]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어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문제이다.

길동이가 신출귀몰한 능력을 지녔다는 전제를 <보기>로 준 후에, 본문의 내용들을 이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문제이다. 길동이 병조 판서를 제수 받게 되자 임금 앞에 사은하러 나가 엎드려 절한 것은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행동이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